

경제

# 구제역 파동... 전남産 '청정한우' 뜬다

### 나주공판장 거래량 평소보다 30% 늘어 명절 앞두고 물량 부족엔 가격상승 우려

구제역 확산으로 유통업체가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 산지 한우농가와 공급계약을 서두르면서 전남지역의 한우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28일 나주축산물공판장에 따르면 구제역 여파로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산 한우 인기로 인해 한우 거래 물량이 평소보다 30% 가량 늘었다.

나주축산물공판장의 한우 하루 평균 거래량은 60~70 마리 안팎이었지만 이날 현재 82마리가 거래되고 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3주 전에 한우

거래물량이 증가하지만 최근 구제역 여파로 소값 하락을 걱정하는 지역 축산농가들이 서둘러 한우를 내놓는 것도 거래량 증가 원인이다.

게다가 이동제한 조치로 서울축산물공판장의 한우 거래물량이 평소보다 30%가량 줄어들면서 전남으로 한우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근삼 나주축산물공판장 경매실장은 "거래물량이 대폭 늘면서 전남 지역 전체 한우 평균 거래가는 kg당 1만6000원 수준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축산물공판장의 한우

거래물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전남 지역 한우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사전 계약으로 병동한우 산물세트 물량확보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명절 30일 전후로 도축이 이뤄지는 냉장육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미리 확보할 수 없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에 대한 불안심리로 지역 축산농가들이 서둘러 도축을 하고 있어 1월 중순에는 물량 부족으로 인한 한우 가격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남지역 한우산지와 계약을 마쳐 명절 선물 세트 수량이 이미 확보했지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등 다른 지역 점포들이 한우산물세트 가격을 10~20%가량 인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병동한우 위주로 산물세트를 편성하는 대신 냉장한우 물량을 50% 가량 줄일 계획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설 선물 세트 수량은 계약농장을 통해 이미 확보했지만 구제역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량과공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체 한 축산바이어는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설에 맞추어 출하하려던 것을 한 달가량 빨리 도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도축이 앞당겨져 1월 중순쯤엔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현대차 글로벌 청년봉사단 발대 28일 현대자동차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Happy Move 글로벌 청년봉사단' 6기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내년 1월초 해외 파견에 나서 2월 중순까지 총 500명의 인원이 중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필리핀 등지에서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펼친다. (현대차제공)

## 금호고속 새 노조 2차 파업

### 사측 교섭 거부 반발... 내일부터 1월 4일까지 '시한부'

지난 주 '64년 무분규' 전통을 깨고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금호고속 노조가 오는 30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금호고속지회는 28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새벽 4시부터 내년 1월4일 오전 10시까지 5일간 2차 시한부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지회는 회견문에서 "지난 25일 예고됐던 파업까지 유보하며 회사측에 단체교섭을 재차 촉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1차 파업보다 강도를 높여 2차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29일 파업 전야제를 열고, 터미널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행진 등 평화적 방법으로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2차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단체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정결단의 각오로 전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들의 집단 행동은 파업이 아닌 일부 승무사원들

의 운행거부 행위"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예비승무사원을 추가로 투입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지회는 앞서 지난 18~20일에도 파업을 벌여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등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호고속 노사는 복수노조 허용 여부를 놓고 고소·고발과 폭력 사태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올 전남 신설법인수 크게 줄었다

### 작년보다 10% 감소한 1495개... 전국은 5만4853개 급증

전국 신설법인 수가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전남지역은 지난해보다 무려 10%나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의 신설법인 수는 5만

4853개로, 2003년 이후 1~11월 누계치로는 가장 많았다.

지난 11월 한 달간 새로 생긴 법인이 489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올들어 11월까지 신설법인이 149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4개)보다 10.7% 감소했다. 광주는 1581개가 새로 생겨 지난해 같은 기간(1580개)보다 1개가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산업평화상' 수상자 선정

금호미쓰이화학이 28일 전남도의 '제 7회 산업평화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호미쓰이화학(대표이사 박찬구)은 지난 1989년 창사 이래 무분규 사업장으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호미쓰이화학은 '항구적 노사 산업평화 실천다짐대회'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간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왔다.

금상은 26년간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 및 향만 기능인력 양성에 노력해 온 서성기 광양항만 항운노동조



박찬구대표이사 서성기 위원장 노상오 이사



최영채사무국장 조경철 부장

합 위원장이, 은상은 공기업 민영화 이후 9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는데 힘쓴 노상오 KC㈜ 이사, 동상은 최영채 한국노총 목포지역본부 사무국장, 조경철 ㈜경인엔지니어링 부장이 각각 선정됐다. /김지욱기자 dok2000@

## 전통시장 348곳 2065억 푼다

### 주차장·아케이드 시설 개선

중소기업청은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예산 2065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역별 특성을 살려 전통시장 348곳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1655억 원이 지원된다.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진입로 등 시설을 개선하고 고객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공동구매 등을 통해 상인의 거래비용을 절감해 주고 시장을 홍보하는 사업, 상인을 육성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사업 등에는 355억 원이 쓰인다.

점포 경영을 선진화하기 위해 상품 진열법이나 고객관리 기법 등을 가르쳐 주고 퇴직 인력을 컨설턴트로 활용해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도 15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통시장을 상점이 단위

가 아닌 상권 단위에서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기청은 내년에 2개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에 40억원을 들여 공동마케팅과 환경 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의 방법으로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연협뉴스

코스피지수	▲ 2,033.32 (+11.13)
코스닥지수	▼ 494.95 (-1.73)
금리 (국고채 3년)	▲ 3.37% (+0.02)
원·달러 환율	▼ 1,148.00원 (-1.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대기업 56% "내년 대졸신입 뽑겠다"

내년에 대기업들의 채용이 올 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326곳)의 56.4%(184곳)가 내년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고, 23.6%는 채용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계획을 정한 184개사의

채용 예상인원은 올 해보다 6.7% 증가한 2만656명으로 집계됐다.

내년에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겠다는 응답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63.2%, 기계철강 63.2%, 금융 60.3%, 건설 46.3%, 식음료 및 외식 40.0%였다.

업종별 예상 채용 증가율은 기계철강이 1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식음료 및 외식 12.1%, IT 10.9%, 석유화학 10.8%, 자동차 및 운수 9.7% 순이었다. /연협뉴스

## 하이패스 이용차량 '5%할인' 1년 연장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 끝나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대한 5% 상시 할인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20~50%, 나머지 시간대에는 통행료의 5%를 할인받는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5% 상시 할인을 통해 올 한 해 534억원의 통행료가 할인됐으며 내년에는 할인금액이 6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협뉴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은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시트시공 2. 단열베이스시트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 특허방수

하재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탁월, 전천후시공성

에코에너지에너지를 1년·간절미리감축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30~40% 냉기차단 15~20%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절감 30~40% 난방비 절감 15~20%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대리점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